

※ 아산재단은 어려운 이웃의 실제생활이 향상되도록 '취약계층자립'과 '중사자 역량강화' 사업 등 사회복지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미흡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독거노인의 정서 지원을 위한 '노노(老老)케어' 사업 등 새로운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사회복지지원사업의 미담(美談) 3건을 소개합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16년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17명의 이주여성을 '이주여성 인권지원단'으로 선정, 자국 출신 이주여성을 돕는 활동을 펼쳤다. 2017년에는 15명을 선발했다.

## “인권 교육받은 이주여성이 사각지대 이주여성 돕는다”

글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캄보디아에서 온 캣소파니. 스물에 남편을 만나 한국에 온 지 6년 된 이주여성이다. 한국말이 재미있어서 빨리 익힌 그녀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 구사 장점을 살려 통역봉사를 시작했다. 같은 나라 출신 이주여성이 한국어가 서툴러서 당하는 어려움을 돕다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이주여성 인권지원단' 교육에 참여했다. '이주여성에 의한 이주여성 인권보호'라는 교육 목표가 자신이 원했던 내용이기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교육 도중에 그녀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접했다. 그녀는 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을 지원했다.

볼리비아 출신의 모니카. 그녀는 1983년 볼리비아에서 한국 이주민들을 만난 인연으로 한국어를 혼자 공부했다. 한국

은 1962년 해외이주법을 제정하고 파라과이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로의 이주를 장려했다. 볼리비아에도 비슷한 배경의 한국인들이 이주했다.

한국을 좋아한 그녀는 현지에서 한국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온 지 20년이 넘었다.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이주여성이 드물어서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녀는 한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과 인권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이주여성 인권지원단에 참여했다. 그녀는 일하다가 다친 콜롬비아 출신 이주여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도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아산재단의 지원으로 2016년 실시한 이주여성 인권지원단 사업에는 17명의 이주여성이 교육을 수료하고 인권 지원활동에 나섰다. 2017년에도 같은 사업에 1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지원자가 25명이나 될 만큼 관심을 끌었다.

### 1년 동안 150회 지원활동

인권 교육을 받은 이주여성이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 이주여성을 발굴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목표다. 두 번째는 교육받은 이주여성이 스스로 사각지대 이주여성을 돕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주여성 스스로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인권지원단은 벌써 5년째 실시하는 사업이다.

인권지원단 교육은 3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여성이주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부터 이주민 체류와 관련 제도, 이주노동자 정책과 현장상담 등 실무적인 내용까지 포함됐다. 교육 수료 후에도 정례모임과 보수교육이 계속됐다.

교육을 수료한 이주여성들은 자국 출신 커뮤니티를 통해 사각지대 이주여성을 찾아 나섰다. 그 이주여성이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인지 같은 나라 출신이라는 공감대와 언어를 통해 파악했다. 정보 지원인 경우는 그동안의 교육 내용을 토대로 정



이주여성 인권지원단은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거리 캠페인도 벌였다.

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폭력, 귀국, 의료, 법률, 산업재해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활동했다. 인권지원단의 활동은 100회로 계획했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은 열정적으로 활동했고, 그 결과 150회나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인권지원단은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캠페인 활동도 펼쳤다. 세계여성의날과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에 거리 캠페인을 함께했다. 이주민이 많이 오는 지역의 다문화 축제나 행사에서 인권지원단 활동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인권지원단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이주여성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 서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더욱 효율적인 지원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전국 수련회가 1박2일로 열렸다. 수련회를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출신국별 특성에 따라 지원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인권지원단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은 자국 출신 이주여성을 도우면서 자부심이 커졌고, 도움 받은 이주여성들은 외롭던 타지에서 자신의 심경을 자신의 언어로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 자체를 고마워했다. 인권지원단의 이주여성들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면서 더욱 성장하고 있다.



# 따뜻함과 즐거움 주고받는 세.시.봉

글 김민주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부산시 수영구의 세.시.봉 봉사단 15명은 한 사람당 2명씩 총 30명의 홀몸노인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있다.

바쁘고 각박하며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이다.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도 줄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온정을 나누고자 ‘세.시.봉’이 태어났다. 세시봉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시니어봉사단’의 준말이다.

세시봉은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이 있고 건강한 노인이 홀로 지내는 노인들에게 전화연락과 만남을 통해 친구가 되는 활동이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떡할까, 친구가 돼주어야 할 분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같은 고민을 가지고 봉사자와 이용자를 모집했다. 고민하며 방법을 찾은 덕에 15명의 세시봉 봉사단이 꾸려졌고, 1인 2명의 매칭을 통해 30명의 홀몸노인과 소중한 인연이 시작됐다. 다음은 2년이 돼가는 활동 중에 생긴 에피소드다.

김명자 봉사자는 평소 교회와 경로당 등에서 안마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분의 활동을 잘 알고 있었기에 봉사단 참여를 제안했다. 봉사자는 활동을 앞두고 불안감이 컸지만 첫 만남을 위해 연락을 한 순간 걱정이 기우임을 알게 됐다. 친구가 필요했던 홀몸노인이 반갑게 집에 초대해준 것이다. 그러나 현관문을 들어선 순간 “누군데 함부로 들어오노!”라는 노인의 호통에 봉사자는 당황했다. 조금 전 전화로 반겨주던 노인은 간 데 없었다. ‘아~ 노인이 기억력이 좋지 않구나!’ 생각하고 노인을 달래며

대화를 하다보니 서서히 마음을 열면서 호의적으로 대해주었다.

다음날 복지관으로 “집에 온다던 그 아줌마는 왜 안 오노. 내가 어제 억수로 기다렸다 아이가”라는 대상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담당자는 놀라서 봉사자에게 전화했고, 어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알고 보니, 원래 방문해야 하는 집과 비슷한 다른 집을 찾아간 것이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어 잘못 방문한 노인에게 찾아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어렵게 만난 인연을 끊을 수는 없었다. 이 노인 또한 친구가 필요한 홀몸노인이어서 세시봉 대상으로 만들었다. 실수로 맺은 인연이지만 김명자 봉사자는 대상자와 모녀처럼 지내며, “이 활동에 항상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얼마 전, 봉사자들에게 ‘세시봉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건강한 사랑의 봉사’ ‘대화의 창’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세시봉은 행복이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즐거운 마음이니까’라는 답변이었다.

이 말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전화가 귀찮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봉사자도, 홀몸노인도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아산재단의 노노케어 사업을 통해 세상이 따뜻해지는 기적을 우리 세시봉은 이루어가고 있다.

# 공격행동 보이던 발달장애인의 놀라운 변화

글 김계향

노틀담복지관 능력개발팀장



복지관에 마련된 감성카페에 아버지를 초대해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는 J씨.

오늘은 J씨가 노틀담복지관 긍정행동 지원실에서 본인의 이 름 이니셜을 걸고 운영하는 ‘감성카페’에 아버지를 초대한 날이 다. 아버지는 여러 생각이 든다. 여태 학교나 복지관에서 발생한 J씨의 폭력 등 도전행동 때문에 ‘소환’된 적은 있어도 ‘초대’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정성껏 준비한 차와 간식을 내온 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쑥스러운 듯 아버지와 아들은 미소를 짓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아들은 느리지만 정확하게 “와.주.서.서 감사.합.니.다” 대답한다.

J씨는 동생들을 잘 챙기고, 지구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도 지녔지만 집에서는 대부분 누워서 지냈다. 복지관 활동 참여를 권유하기만 해도 욕을 했고, 친구들과 실무자를 때렸으며, 물건을 던 지기도 했다. 워낙 체구가 커서 한 번 돌변하면 무서웠다.

실무자는 J씨가 감정을 조절하도록 감성카페 활동을 시도했 다. 처음에는 실무자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친구들에게 다과를 건네주는 것부터 시작했다. 자신의 간식을 나누다는 것은 J씨에 게 큰 도전이었다. 매번 한 가지씩 활동을 늘려갔다. 그러다 보니 미술활동 시간에 그림은 그리지 않아도 감성카페 초대를 위한 초대장은 열심히 만들었다. 점심식사 이후 양치질은 안 해도 카 페를 운영하는 날은 손님맛이를 위해 빗질과 양치질을 했다. 다 과 준비를 위해 구매목록을 만들어 무엇을 살지 함께 결정하고,

직접 구매도 해본다. 구매한 과일을 씻고 간단한 간식도 만들어 본다. 손님이 가면 실무자와 함께 정리하고 쓰레기도 분류한다. 본인이 초대한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대화를 나누며 카페를 통 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긍정적으로 바뀐 행동을 칭찬한다. J씨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격려를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 다양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경험할수록 감정 억제력이 향상됐다. 공격하던 친구를 배려하고, 선생님들에게 먼저 인사도 한다. 머 지않아 카페 밖에서도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노틀담복지관은 2015년 7월부터 아 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폐성 패턴의 서비스 환경 디자인’이라 는 사업을 3년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가장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한다’는 노틀담수녀회의 이념에 따라 심각한 타해나 자해의 도 전행동으로 기존 서비스에서 배제된 분들과 함께할 방법을 찾아 보고자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아산재단의 지원 이후에도 인천 시의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이는 사회 적으로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자립 분야에 아낌없이 지원해 준 아산재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 한다. ☺